



오늘의 날씨와 생활

4월 27일 월요일 음 4월 5일 (12월)

기상정보

맑음



제주도는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9-11°C, 낮 최고 기온은 17-18°C의 분포를 보이겠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제주, 오후. Rows show 10% probability for Jeju, Gyeongju, Goseong, and Seogwi.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달뜨기. Rows show times for sunrise (05:50), sunset (08:29), moonrise (19:14), and moonset (23:08).

Table with 3 columns: 내일, 맑음, 11/19°C. Rows show weather and temperature for tomorrow and the following day.

Table with 2 columns: 식중독지수, 감기가능지수. Rows show '주의' (caution) for food poisoning and '보통' (normal) for cold risk.

월드뉴스

안나푸르나 실종 교사 추정 시신 2구 발견

수습 후 국립 티칭병원 이송



안나푸르나 눈사태 실종자 수색 현장.

지난 1월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로 실종된 한국인 교사 4명 가운데 2명의 시신이 실종 100일째인 지난 25일 주빈에 의해 발견됐다.

주네팔 한국대사관 등 외교당국과 충남교육청은 "현지시간 25일 오후 3시께 사고 현장을 모니터링하던 주민 수색대장이 시신 2구를 발견했다"고 26일 밝혔다.

라를 경유, 26일 오후 수도 카트만두 소재 국립티칭병원으로 이송된다.

시신 2구는 이날 눈사태 사고 현장에서 70~80m가량 떨어진 계곡 인근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산과 계곡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지는 좁은 길에서 발생했고, 눈사태로 발생한 눈과 얼음이 길가 계곡 아래까지 밀고 내려간 상태였다.

한 산악인은 "눈사태 때 시신이 밀려서 내려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지 군경과 주민은 시신이 발견된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수색을 하고 있다.

시신 발견 직후 날이 어두워지고 비가 내린 바람에 네팔 군경과 현지 주민은 26일 오전 시신 수습에 나섰다. 네팔군은 헬리콥터까지 투입, 수습 작업을 지원했다.

시신 수습 직후 충남교육청 측은 "시신 2구는 남교사 1명과 여교사 1명으로 확인됐다"며 "발견된 시신 2구에서 나온 여권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습된 시신은 헬기로 인근 포카

한리일보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phone numbers and website URL.

백록담



문 미숙

서귀포지사장·제2사회부장

코로나19 진로방식으로 전세계가 주목한 '드라이브 스투'가 최근 농수축산물 판매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제주에서 자연재해로 한 해 발농사를 망치는 일이 다반사이다. 기상여건이 좋아 풍작을 맞으면 수확의 기쁨 대신 가격폭락이 기다리고,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값싼 수입산과 경쟁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초유의 감염병 사태는 앞친데 덮친 격이다.

월동무 주산지에서의 키위 소득단지 실험

이런 가운데 농산물 생산자단체인 농협과 행정이 협업 추진하는 사업이 눈에 띈다. 성산일출봉농협이 계획을 수립한 '월동채소 대체작목 육성을 위한 정예소득 작목단지(키위) 조성사업'인데 생산자단체와 행정, 농업기술원, 농업인이 키위 생산에서 판매까지 역할분담과 협력체제로 추진한다는 점도 색다르다.

이 사업의 배경에는 월동무 주산지인 성산지역에서의 재배면적 증가로 가격폭락 등 농가소득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비롯됐다. 2017년 기준 성산읍의 경지면적 3455ha 중 월동무 재배면적은 65.2%(2254ha)를 점유한다. 이 기간 9개 주요 발작물의 도내 총

경지면적은 4만2627ha에서 3만9589ha로 7.1% 감소했다. 월동무는 다른작물보다 노동력 투입이 적고 재배도 손쉬워 중산간 지역으로까지 재배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수요 대비 공급과잉으로 갈아엎는 경우도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성산일출봉농협의 키위 정예소득단지 조성은 '월동무' 단작 중심에서 '키위+월동무'라는 품목 포트폴리오 구축으로 농업소득 안정화와 함께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농업인을 육성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취지도 담겨있다.

게 된다. 농가가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면 생산자단체가 판매를 책임지는 이상적인 시스템이다.

2018년 국내 키위 소비량 5만4400t 중 국내산 비중은 39.5%로 추정된다. 수입산 비중이 높지만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이 2016년 1월부터 발효되면서 학교·군대 등 공공급식 식재료의 국내산 우선 조달 여건이 형성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푸드플랜 정책수립 확산으로 국내산 키위 소비에 우호적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에선 월동무 뿐 아니라 마늘, 양배추 등이 잦은 처리난을 겪곤 한다. 그럴 때마다 대체작물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대체할 작물 찾기가 마땅치 않고, 자칫 타작물의 생산과잉을 부를 가능성이 상존한다. 행정과 생산자단체 등이 머리를 맞댄 이번 키위 정예소득단지 조성사업이 비록 시작은 미미하지만 앞으로 안정적인 복합영농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열린마당

인구정책 핵심 '수치가 아닌 내용'



하창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도시·지역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인구다. 도시·지역계획 수립 시 가장 먼저 계획인구 또는 목표인구를 설정한다. 대부분의 도시·지역에서 목표인구는 과다추계해 산정하고 있다.

2020년 4월 발표된 제주도 인구정책 종합계획에서는 목표인구는 2030년에는 75만명, 2045년에는 78만 7000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는 물론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이런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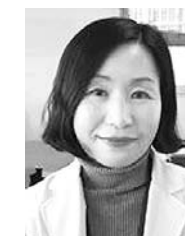
하에서 과연 목표인구를 달성할 수 있을까? 지역산업이나 주택, 교육, 육아 등 생활인프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우월적 위치를 차지하기 어려운 지역일수록 목표인구의 수치보다는 그 내용에 대한 접근이 더욱 중요하게 된다.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13년간 총 143조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저하를 막지 못하는 것은 정책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유사한 지원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

도시·지역발전정책은 산업구조, 공공주택, 공공육아, 공공육아 등 젊은 부부가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과 육아환경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출산율 향상은 물론 인구정책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도시·지역의 인구정책에서 과도한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지역여건을 감안한 실질적인 정책내용-일자리, 정주환경 등을 담을 수 있을 때 살기좋은 도시와 지속가능한 도시·지역발전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힐링 UP! 하영 걸을락(樂)'으로 걸어요



조정선

서귀포시 상항보건진료소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의하면 걷기실천율은 제주도 35.4%, 전국 42.9%로 집계돼 제주도가 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건강행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진료소에서는 힐링UP 하영 걸을락(樂)을 추진하고 있다.

'힐링 UP! 하영 걸을락(樂)'사업은 11개 보건진료소에서 건강생활의 기본인 걷기 중요성에 대한 인식 향상과 함께 1일 40분 이상 가까운 거리 걸어 다니기 운동 전개 및 홍보, 마을별 걷기 붐 조성을 위한 환경 조성, 주3회 걷기운동교실 및 걷기교육, 걷기대회 등을 진행하게 된다. 중장년층에게는 모바일 걷기 앱(위크온)을 이용하게 한다. 스마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노인에게는 출력부를

제공한다. 이 뿐만 아니라 즐겁게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마을 안 걷기 코스'를 지정해 바른걷기 체조를 통한 준비운동을 하고, 상항보건진료소를 출발점으로 파더슨가든 한바퀴(왕복 50분)를 걷는다. 카멜리아힐, 뽕로테마파크, ADD농원 등 지역 문화자원도 체험하면서 낮은 걷기실천율 향상 및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에 노력중이다.

최근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함께 걷는 것은 잠시 멈췄지만 면역형성을 위해 개인건강을 돌려주고 있다. 걸으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꾸준히 걸을 때마다 낮아지는 혈압수치와 자신감과 성취감도 생긴다. 이를 통해 매일 걷기친구(모임)가 생기고 활성화돼 더 행복감을 느낀다고 했던 한 주민의 얘기가 떠오른다.

주민들과 함께 걷기교실, 사랑방교실, 보건진료, 건강상담, 운동교실 등을 운영하면서 심뇌혈관질환예방, 치매예방 등 주민의 건강수준향상과 건강수명 연장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감사함을 느낀다. 지금 힐링 UP! 하영 걸을락(樂)으로 모두가 함께 건강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Grand Bocheonggi advertisement featuring a doctor and text about COVID-19 prevention and health services.

International Health Insurance (국제보청기)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 details.

Jeju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dvertisement for Hanra Construction (한라전설).

Advertisement for a construction company listing various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